

기초단체장 서남권 대회전

6·13지방선거D-6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서남부권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전남 서남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현재 접전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전남 서남부권에 당 역량을 총력 지원하고 나섰고, 민주평화당도 이에 맞서 전략지역인 전남 중서부권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8일 목포에서 추미애 대표가 직접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목포, 장흥, 보성, 광양, 여수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중앙선대위는 평화당 박홍률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중식 목포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연다.

이는 목포시가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데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력을 집중해 평화당의 기세를 꺾고 김중식 후보에게 힘을 보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목포시장 선거는 현재 후보 간 대결도 대결이지만, 선거 막판 민주당과 평화당 간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전선거 시작 전날인 7일에는 정세균·박영선·우원식·이인영·김태연 의원 등 광주·전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

민주 내일 목포서 중앙선대위 평화당 지도부 1박 2일 유세 전남 최대 격전지 당력 총동원

량급 의원들을 대거 전남에 투입한다. 현재 열세로 꼽히는 지역과 상대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전남 서남부권 지역에 투입해 집중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심잡기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목포·신안을 거점으로 무안·진도·함평·장성 등 전남 서남부권과 광양·고흥·해남·강진·장흥 등 전남 남부권을 돌며 후보들의 집중·지원 유세에 나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6일까지 선대위 유세단장을 맡고 있는 정태래 전 의원과 박주민·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해남 출신인 박광은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을 대거 전남으로 내려 보내 당내에서 열세·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목포와 고흥·무안·신안·장성·강진·해남·광양 등 전남 서남부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평화당도 전남 서남부 지역에 집중 포화를 쏟고 있다. 조배숙 대표와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지역국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해 지난 4~5일까지 1박2일 동안 목포와 무안, 영암, 해남, 강진 등 전남 서남부권에서 총력 유세와 후보자 지원유세를 펼쳤다.

또한,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

은 박지원 의원은 영암·무안 등을 집중 공략하는 등 전남 서남부권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고, 정동영 의원은 곡성과 화순 등에서 총력 지원에 가세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도 이처럼 '전남 서남권 벨트'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지역 국회의원이 대부분 평화당 소속인데다, 특히 서남권 중심이 되는 목포가 지역구이고 진도가 고향인 박지원 의원의 조직력 등이 탄탄한 탓에 '민주당 바람'이 쉽게 파고 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특성상 정당 보다는 조직과 인물론 등으로 승부가 갈렸다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여권 후보에 맞선 야당과 비민주 후보들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중앙급 의원과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을 집중 유세에 투입하는 등 전남 서남부권에 당력을 집중, 바람몰이에 나서면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평화당도 일부 접전·우세지역에 집중하면서 민주당 독식을 막고 전남 서남부벨트에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남 서남권 벨트 지역은 지역 특성상 당 보다는 조직과 인물론 등으로 승부가 결정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이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민주당과 평화당 간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투표하고 월드컵 응원하자" 6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중초등학교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중초초 여자축구부원과 함께 '투표하고 월드컵 응원하자'를 주제로 지방선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평화와 고요의 섬'서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 무대 선포사 섬 카펠라 호텔 낙점

북미 정상 간에 '세기의 담판'이 벌어질 역사적 무대로 선포사 섬의 카펠라 호텔이 낙점됐다. <관련기사 2·8면>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를 뜻하는 섬에서 세계평화 달성의 숙원과제로 볼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커 보인다.

백악관은 오는 12일 싱가포르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회담을 시작한다고 전날 발표한 데 이어 선포사 섬의 고급 휴양지인 카펠라 호텔이 장소가 확정됐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시간표에 이어 회담장까지 결정되면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변수로 남아있는 남북미 싱가포르 회담 개최문제를 빼고는 실무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륙도인 선포사 섬은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교통수단만 차단하면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낼 수 있어 경호와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온 북미정상회담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각각 다른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두 정상은 12일 오전 중립적 성격의 제3의 장소인 이곳에서 만나 대화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외국 정상들과 가져온 정상회담 관례 등에 비춰볼 때 이번 북미정상회담도 '단독정상회담→확대정상회담'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순서대로 라면 오전 9시에 바로 통역을 빼고는 배석자 없는 일대일 담판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단독회담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 확대정상회담의 시간표나 오·만찬, 그 밖의 이벤트 일정도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졌다. 보다 깊이있고 허심탄화한 논의를 위해 확대정상회담의 경우도 배석자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이 당일치기로 끝난다면 공동성선 언론 또는 성명 발표 시점은 확대정상회담 후 만찬으로 넘어가기 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 자체는 현재로서는 하루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 않는다"며 "양측 정상이 만나는 자리는 단독회담, 확대회담, 오찬 또는 만찬 등 세 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필요하다면 그날(6월 12일)을 넘겨 연장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현상황에 따라 회담 일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종전 선언 문제와 연동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현대차 투자 합작법인 자산규모 최소 7000억원

현대차 최대 19% 지분

광주시 투자자금 20% 이상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합작법인의 자산 규모가 7000억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10만대 생산설비, 부지 규모 70만㎡ 등을 감안하면 최소 7000억~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시는 6일 "현대차가 합작법인에 대한 비지배구조를 유지하려면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며 "현대차에 20% 미만 수준에서 최대 지분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대 주주로서 2대 주주인 현대차보

다 많은 지분을 갖게 된다.

시는 현대차를 상대로 위탁 차중, 가격, 기간 등을 놓고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성을 갖춘 신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가 유력한 가운데, 연구 개발과 부품 생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차 가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고 있는 시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현대차와 본격적인 '밀담'에 들어간 모양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생산공장의 성패가 이번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대차 부품업체의 광주 진출, 다른 대기업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등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매주 3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시와 현대차의 협상은 이르면 이달 내에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협상안에 대한 법률 검토, 지역 내 의견 수렴, 추가 투자자 모집 등을 서둘러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지난 8년, 광주교육을 망치고도 부끄럽지 않나 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진보냐, 보수냐 편가르기 바빠니다.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표 진보교육감이라 칭하며 진보교육 하겠다 합니다.

교육엔 색깔이 없습니다.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만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교육 오로지 혁신

이정선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광주교육의 미래만을 생각합니다.

교육을 바꿔야 내 아이의 미래도 바뀝니다.

이정선 내 아이의 삶을 바꾸는 혁신정책

- 1 공부도 잘하는 실력있는 혁신교육
학습·창의성·인성 3up
- 2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무상교복, 무상안전통학버스
- 3 시민 직접 참여로 학교 업무 대폭 축소
전국 최초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신설

내 아이의 삶을 바꾸는

혁신정책
혁신교육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이정선